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디자인사고 확립 및 시행방안

Design Policy for the Local Government

김영현(Young-Hyun, Kim)

울산대학교 디자인대학

임창빈(Chang-Bin, Im)

울산대학교 디자인대학

백운호(Woon-Ho, Baek)

울산대학교 디자인대학

전성복(Sung-Bok, jun)

울산대학교 디자인대학

이 논문은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2. 연구내용 및 방법

2. 디자인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환경의 변화

- 2-1. 디자인의 개념
- 2-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환경 변화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디자인이 도입된 사례

- 3-1. 우리나라의 사례
- 3-2. 일본의 사례
- 3-3. 사례분석

4.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사고 도입을 위한 구체화 방안

- 4-1. 시민요구의 파악
- 4-2. 공공디자인의 형성
- 4-3. 구체화 방법
- 4-4. 시민으로서의 제안과 평가
- 4-5. 지역산업의 도시경관조성 참가
- 4-6. 행정에 있어서의 디자인매니지먼트
- 4-7. 모델 케이스로서 울산광역시 행정 시스템에 디자인 사고 도입을 위한 방안

5. 결론

참고문헌

(要約)

탈경계(脫境界) 개념이 확산되면서 국가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지역의 특성은 강조되는 이른바 개성의 다원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는 등 행정개혁을 통하여 대외경쟁력 제고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의 본질이 주민의 '삶의 질' 을 높이는데 있다면 그 방법의 하나로서 행정에 '디자인' 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디자인의 제도적 도입은 주민의 '행복지수' 를 높여 주민의 역할을 결집시킴으로서 지역경제를 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지방자치행정에서의 '디자인적 사고' 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사례로서 분석하여 그 시행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서 디자인적 사고가 확립될 수 있게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시행됨으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적인 디자인행정을 펼치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개성있는 지역이미지가 효율적으로 창출되어 주민의 '삶의 질' 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Abstract)

We are facing the era of multi-identities in which locals got emphasized, whereas nations'boundary are breaking off under the expansion of de-bounadarisim. In this trend,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are striving to have foreign competitiveness through reforming their administration, such as adopting management styles of companies.

If the purpose of administration is set for developing 'the quality of residents' life', introducing 'design' into administration would be one of the best ways. By adopting this design concept, resident's 'happiness index' will be increased so that residents' capability will be consolida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econ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various cases of introducing 'design concept' into administration in local autonomous entities. All the methods of introducing design concept are analysed and the implementation methods are proposed.

If local autonomous entities operate the design based administration proposed by this study, and if this is relevant to locals, it will create its unique local image and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quality of resident's life' as well.

(Keyword)

local autonomous entities, design concept

제1장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에서 디자인은 그 영역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면서 발전하게 되어 이제는 우리생활에 디자인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거의 없게 되었다.

우리의 사회환경 전체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와 사물들이, 만들어지는 실체화(實體化)의 과정에서 형태로서 만들어 내는 것을 디자인이라 한다면 디자인은 그 개인, 사회, 시대가 갖는 고유의 미의식 및 가치, 시대정신을 표현하며 발전해간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디자인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발전해 왔으나 우리나라의 정부 특히, 지방정부인 지방자치단체에 디자인 행정에 관련된 부서가 아직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않아 계획적인 디자인 정책을 펴고 있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느 지역, 어느 도시를 가 보아도 콘크리트로 구성된 획일적인 도시 뿐 그 지역만의 독특함을 찾아 볼 수가 없다. 독특함이란 그 지역의 자연환경, 역사, 문화, 그리고 그 지역에 살아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 가 담긴 경관 등 그 지역만의 독특한 향기이다. 그러한 지역의 독특한 특성들을 살려내어 그 지역 특유의 이미지를 개발하는 것 들이 관광상품으로 개발되어짐으로서 그 지역을 다시 찾고싶게 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관광수요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거기에 그 지역만의 독특한 특산품들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면 그것들은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독특함' 과 '특산품'은 문화상품으로서 그 지역 주민의 보다 윤택한 삶을 누리게 해주게 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그러한 요인을 불러 일으키게 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책적으로 지방자치체의 차별화를 위한 디자인 행정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한다. 행정에 디자인전문 부서를 둠으로서 전문 디자이너와의 연계에 의한 환경관련 업무 및 기업의 디자인 지도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인 지역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윤택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창출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

1-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에서는 디자인의 일반적 고찰로서 환경에 있어서 디자인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환경의 변화의 주된 요인을 주민의 의식변화로 부터 변화해가는 행정환경을 고찰해 본다.

제3장에서는 지방자치체의 디자인도입 사례를 분석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도청에 디자인부서를 두고 있는 두 곳, 경기도청과 충청북도청의 디자인 도입 사례와, 외국의 사례로서는 지방자치체가 우리나라와 유사하면서 이미 지방자치체가 정착되어 많은 발전을 해 온 일본의 사례를 국내의 현지 방문과 답사에 의한, 관계자와의 면담과 자료수집으로서 파악한다. 특히 일본의 후쿠오카시와 나가사키시는 해안도시로서 강과 항만을 끼고 있고 울산광역시와 유사한 지역 여건과 환경,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행정에 디자인담당 부서를 두고 꾸준한 변화를 모색하여 일본내에서도 디자인도입 사례의 모델로 되어 있어 그 두 도시를 주된 사례로서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디자인사고 도입을 위한 구체화 방안의 여러가지 모델을 대안으로서 제시하고, 모델 케이스로서 울산광역시 행정 시스템에 디자인 사고의 도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 제5장 결론을 맺는다.

제2장 디자인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환경의 변화

2-1. 디자인의 개념

디자인은 인간생활의 향상을 위한 인공환경을 만들어내는 총체적 행위의 한 요소이다.¹⁾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은 현재의 환경속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구체적 작업과 계획으로서 모든 인간 활동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경험의 바탕위에 다양한 표현을 추구한 형태로서, 디자인의 산물이 어떤 사회적 기능을 가질 것인가를 탐구하는 행위가 디자인이라 말할 수 있다. 때문에 디자인은 인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방면에서 인간의 필요를 알아내는 방법과 그것들의 관련성, 자극하는 방법 등에 관계하면서 인간의 세계를 보다 폭넓고 아름답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디자인을 활용한다.

디자인은 이렇게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창조적, 사회적인 하나의 예술행위로서, 우리 주변 모두는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넓은 의미로는 인간생활 그 자체가 디자인의 활동영역이라 말할 수 있다.

이렇듯 디자인은 항상 인간의 실제적 삶과 연결되어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서 실물로서 구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행정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새로운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변화와 개선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제5장에서 논하는 것처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끊임없이 분석, 종합, 의사교환, 가치평가, 미적판단, 공간, 도덕적 판단 등의 과정을 거쳐 디자인물을 탄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을 행정과 디자인전문가에 의해서 아름다운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디자인이 시민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될것이다.

2-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환경 변화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는 교육기회의 확대와 매스컴의 발달로 주민의 의식수준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여 주민의 자치행정의 참여와 비판은 강화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수용하고 처리할 능력이 점점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으로의 인구 이동과 지방 소도읍이 도시로 성장됨에 따라 지방도시의 인구는 점차 증가하여 서울, 부산 등의 인구보다 지방도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주변 농촌에서의 인구 유입으로 상대적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도시화는 급조되고 무질서한 환경을 만들게 되는 요인이 되어 삭막한 도시 환경이 확산됨으로서 지금까지 제기되지 않았던 여러가지 환경문제가 지방행정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

그리고 교통통신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유희성이 크게 증가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지역적 폐쇄성 타파에는 크게 기여할 것이나 그 지역만이 갖고있는 독특한 전통문화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의 지방자치는 이러한 지역만이 갖고있는 전통문화를 어떻게 유지, 보존하여 지역문화로서의 독특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하는가 하는 문제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대두될 것이다.

주민의 소득 향상과 의식수준의 향상은 의식주 생활이 변화되게 됨으로써 삶의 질을 요구하는 문제가 총체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행정에 있어서도 생활의 질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도시 환경문제에 그 해결을 위한 공공욕구의 양과 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의식주의 변화는 생활환경의 변화에 큰 영향을 가지고 오게 되어 주민은 더욱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쾌적한 환경은 궁극적으로 삶의 질의 향상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삶의 질은 대부분 주민복지와 직·간접적으로 깊은 관련을 가지게 된다. 쾌적한 환경의 실현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하에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1) 민경우, 디자인의 이해, 미전사, 1997, P.55

기능 중에 하나가 폐적한 환경경관 조성에 있다면 그 부분에 대응해야 할 당위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조직체계와 기능을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주변환경, 역사적 배경, 주민의 의식 등의 변화를 포함하여 환경행정에 대한 디자인 전문인력의 강화와 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여 행정에 디자인 사고를 도입해야 할 지 합리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디자인 부서를 만들어 환경디자인 및 디자인 개발 지원에 전문인력을 두고 디자인 행정을 펴면서 그러한 모색을 하고 있는 두 곳과 일본의 대표적인 사례 두 곳대해서 분석해 본다.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디자인이 도입된 사례

3-1. 우리나라의 사례

3-1-1. 경기도청 : 경기도청은 1996년 11월부터 '기획관실' 내에 '행정디자인실'을 독립하여 두고 있다.(표1) 구성인원은 전문직 3명(수석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각 1명)을 두고 '아름다운 디자인', '환경 친화적 디자인', '도민 편의적 디자인'의 3대 목표를 설정하고 '한국의 제일 매력있고 특색있는 지역조성'을 꾀하여 생동감 넘치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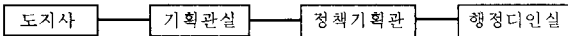


표1. 경기도청 디자인 담당부서의 행정조직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주요기능

- ① 도 이미지 형성사업 (P. I. P) 적용, 관리
- ② 도정 홍보물, 인쇄물에 대한 시각디자인
- ③ 공공시설물의 조형, 색채에 대한 환경디자인
- ④ 디자인 분야 중 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원

2) 분야별 기능 : 행정디자인실은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및 편집디자인, 제품디자인 등 지역특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디자인 사업에 관련한 전문적인 추진사업을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① 시각디자인 분야 : 도정(道政)의 홍보 및 광고를 위한 도(道) 이미지 통일화 계획, 포스터디자인, 광고디자인, 싸인계획, 카렌타디자인 등 인쇄매체를 통하여 시각으로 전달시키는 디자인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② 환경디자인 분야 : 도(道)의 환경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안내표지판, 스트리트 퍼니쉬, 상업간판 통일화, 공공시설 디자인, 유적지 조성계획 등 공간매체를 통한 디자인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③ 멀티미디어 디자인·편집디자인 분야 :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업무보고, 기획안 프레젠테이션, CD-ROM 제작 및 인터넷디자인의 활용을 위한 멀티미디어 디자인 영역과 주요 도서의 발간을 전자출판으로 진행하는 편집디자인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④ 제품디자인 분야 :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디자인개발을 통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외적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산업디자인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3-1-2. 충청북도청 : 충청북도청은 8대시책의 일환으로 '기업진흥과' 내에 '산업디자인실'을 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표2) 구성인원은 전문직(시각, 제품디자인 3명)으로 되어 있으며 '상업(商業)디자인 개발지원'을 목적으로 충청북도 소재 중소기업체(공장등록업체)들의 수출 또는 내수시장을 겨냥한 독창적 이미지와 품질향상을 요하는 제품들의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등의 디자인을 지원하고 있다.

충청북도청 산업디자인실이 인기를 얻음에 따라 지원대상 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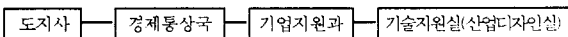


표2. 충청북도청 디자인 담당부서의 행정조직

위를 신규 창업회사까지 확대하고 디자인 중화 전산망을 구축해 최신 디자인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 공급할 계획으로 있다.

3-2. 일본의 사례

3-2-1. 후쿠오카시(福岡市) : 후쿠오카시는 지방자치체가 우리나라와 유사하면서 이미 지방자치체가 정착되어 많은 발전을 해 온 일본의 도시 중 도시경관조성 행정에 있어서 디자인도입의 이상적 모델 사례이다. 해안도시로서 강과 항만을 끼고있어 울산광역시와 유사한 지역 여건과 환경, 인구를 가지고 있고, 행정에 경관디자인담당 부서를 두고 꾸준한 변화를 모색하여 일본내에서도 경관에 있어서 디자인도입 사례의 모델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해가고 있다.

후쿠오카시는 '도시정비국'에 5개 부와 2개 사무소를 두고 도시경관조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도시관리부'에는 '도시경관실'을 두고 '도시경관조례'를 운용하면서 '도시경관형성의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표3)

인구비례에 비하면 상당히 큰 지방정부로 보이는 23국 7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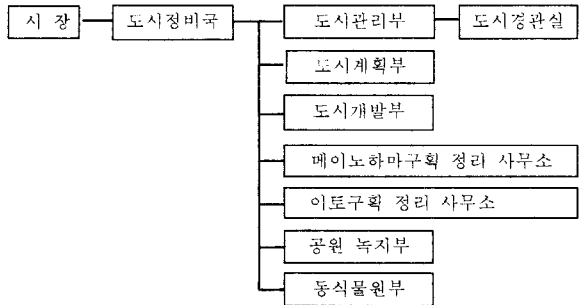


표3. 후쿠오카시의 도시경관 디자인 관련 행정조직

회를 두고 '도시정비국'내에서 대부분의 경관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도시정비국'내에 따로 '도시경관실'을 두고 경관디자인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다.

1) 도시정비국 및 도시경관실 주요사업

도시정비국에서는 도시계획, 토지 구획 정리, 시가지 재개발,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업 등을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다.

도시경관실은 계획, 추진, 옥외 광고물규제 등을 두고 도시경관, 도시경관 심의회, 옥외 광고물의 규제에 관한 기획업, 옥외 광고업의 신고, 옥외 광고물 심의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2) 후쿠오카시 도시경관 조례의 운용

경관 행정에는 규제뿐만이 아니라, 뛰어난 경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시민의 자주적인 활동과 행위를 유도하는 관점을 중요시하여 도시 경관 조례는, 기존의 제도, 수법으로는 컨트롤이 어려운 지구 전체의 경관 형성을 중점적으로 하는 도시경관 형성지구와 대규모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한 조인, 지도에 의한 유도 및 표창·조성 등에 의한 지원을 중심으로 운용해 가고 있다.

3) 조례와 기본계획에 의한 경관조성 4단계

후쿠오카시의 행정과 시민은 서로 협력해서, '조례'와 '기본계획'을 차의 두바퀴와 같이 운용하고, 실제의 도시경관조성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표4)

① 제1단계 : 경관조성의 쫓짐

경관은 도시의 문화도를 나타내는 기준이고, 긴 시간을 걸쳐서 길러진 시민성의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도시가 쾌적하고 아름답고, 안전한 것을 전체로, 그곳에 사람과 사람과의 따뜻한 교류, 자연과의 접촉이 생겨나, 시민의 감성과 창조력이 닦아져, 풍요로운 시민생활이 실현된다. 이와 같이 여유와 정감있는 시민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호한 도

1) 후쿠오카시 도시경관 조례 : 이 조례는 후쿠오카시의 도시경관의 형성에 관해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따라 풍부한 자연과 유구한 역사로 길러진 후쿠오카에 어울리는 멋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조성과 시민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요한 공공사업의 기회로 라이트 업 등에 의한 폐적인 야간 경관의 형성을 만들어 간다. 또, 민간 사업에 관해서는 대규모 건축물 등의 협의에서 양질의 환경조명을 촉구하고 필요에 따라 지나친 라이트 업을 조절해 나아간다.

4)-2. 조각이 있는 도시 조성

매력 있는 도시 공간의 창조를 목표로 주요한 공공 공간에 퍼블릭 아트로서의 옥외 조각을 설치하는 「조각이 있는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1983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보도와 공원·시설의 외관 등에 21개의 작품을 설치해 왔다.

4)-3. 도시 사인(Sign)

‘알기 쉽고 친절한 도시 조성’, ‘매력적인 도시 경관 조성’, ‘국제 도시 조성’을 목표로 공공·공익 시설을 안내하는 자동 차계와 보행자계의 도시 사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도시 정비국에서 기본 계획을 책정하고, 토목국에서 실시 계획을 하고, 일원적으로 설치, 관리를 하는 것으로 사인 디자인의 통일과 사인의 집약화를 꾀하고 있다. 외국어는, 영어에 일부 한국어와 중국어를 병기하고 있다.

4)-4. 옥외 광고물

옥외 광고물은 옥외 광고물법 및 후쿠오카시 옥외 광고물 조례에 의해, 거리 경관의 유지 향상 및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허가제를 도입하여 금지구역과 금지물건을 두어 규제하고 있다.

5) 후쿠오카 도시경관행정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전개

후쿠오카시는 1987년부터 도시경관 사업을 도시경관 조례와 옥외광고물 조례를 바탕으로 실행해 온 실로 많은 일들을 추진해왔고 (표 6)과 같이 앞으로의 사업 전개 방향을 ‘목표’ ‘역할’ ‘기본방향’ ‘시책’ ‘전개’의 4개 구상으로 명확히 해놓고 다음 사업을 시행해 갈 예정이다.

3-2-2. 나가사키시(長崎市) : 나가사키시는 16부 3국 6위원회의 행정체제로서 ‘도시정비부’와 ‘도시계획부’가 협력해 가면서 ‘도시경관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상공관광부’에서는 지역 ‘상공업 디자인 진흥’에 힘쓰고 있다.(표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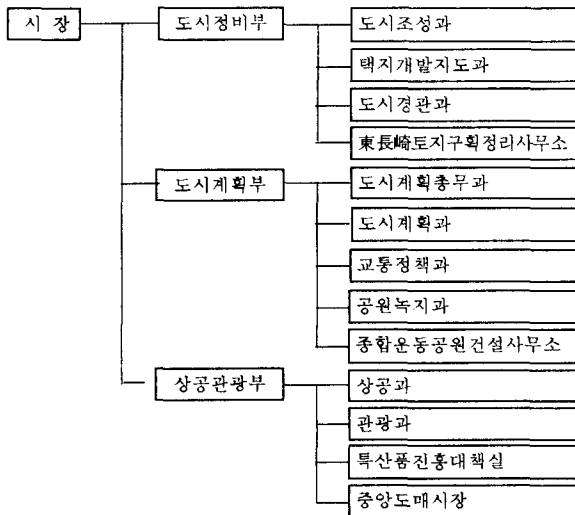


표7 나가사키시의 행정직제

1) 조각이 있는 도시조성 사업

이 사업은 시제 시행 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자리 잡혀져, 공원, 도로, 광장 등의 시민 생활에 밀착된 도시 공간에 우수한 조각을 효과적으로 배치함에 따라, 매력있는 도시 공간의 창출에 의해 나가사키시의 새로운 매력을 창조하고, 정감과 평온함이 있는 마을 만들기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문화 도시로서의 격조 높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험자에 의한 「조각이 있는 도시조성 간담회」와 시의 대표자에 의한 「조각이 있는 도시조성 선정 위원회」에 의

해, 심의하고 결정하며 작품의 선정에 있어서는 그 기준을 ‘나가사키 다움’, ‘알기쉬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조각물’의 3개 항목을 두고 있다.

2) 상품 문화의 확립

나가사키시에서는,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품도 속에서, 수산 가공품 (어묵, 건어물), 향토 과자(카스테라, 중화(中華)과자) 등, 공예품(유리제품 등)의 특색있는 제품을 만들어 내고, 육성해 가고 있다. 최근, 주민들의 풍족함에 대한 가치관이 「물자」에서 「마음」으로 변하고, 생활 양식이 다양화 됨에 따라, 소비 생활도 고도화되는 경향이 있고,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눈도 상당히 까다로워졌음을 인식하고 나가사키시의 제품을 더욱 새롭게 만들어 나가사키의 「상품 문화」를 새로운 관점에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만드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과 소비자와의 교류를 중요시하면서, 품질, 안전성, 환경 보전 등을 중시한 상품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그 결과로 나타난 독자성을 문화로 만들어 가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3-3 사례분석

경기도청이나 충청북도청 모두 디자인 담당부서를 두고 있음에도 별정 계약직으로 되어 있어 직제표상에는 나와있지 않아 외부에서는 디자인 담당부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아직까지 도청내에서도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 보이며 그것은 디자인행정을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경기도청의 ‘행정디자인실’은 도(道)의 이미지형성 도입에 따르는 적용 및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면서 도청내의 시각디자인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도내의 디자인적인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환경디자인 실시는 하지 못하고 있으며 충청북도도 도내(道內)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디자인 지원만을 주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의 환경디자인에 관련된 업무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청의 ‘행정디자인실’은 4개의 분야로 나누어 업무를 구분하고 있으나 3명의 전문직 인력으로 그 모든 분야를 감당하기 어려워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인력과 유능한 협의체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경기도청은 직제상으로는 기획관실내에 속해 있어 도시 직속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업무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나 충청북도청의 ‘산업디자인실’은 기술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다소 시간이 걸리는 등의 장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쿠오카시청은 ‘도시정비국’에서 ‘도시경관조례’에 의한 지역의 개성과 특성을 살려내는 도시경관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도시경관형성기본계획’을 책정하여 그 ‘조례’와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련 부서끼리 횡적인 협의시스템을 갖추어 추진하고 있고 모든 계획에는 주민과의 협의하에 추진함으로써 주민 유도를 꾀하고 있다.

나가사키시청의 경우 후쿠오카시와 다른 점은 나가사키 브랜드의 진흥을 위해 네덜란드 문화를 대표하는 ‘카스테라’와 중국문화를 대표하는 ‘나가사키 짬뽕’ 등으로 나가사키 자체의 브랜드를 만들어 일본 내에는 없는 나가사키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를 살려내려는 특산품개발과 네덜란드와 중국문화가 유입된 지역의 환경보존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본의 두 도시는 모두 도시경관조성 관련된 부서에 행정전문가가 있어 ‘조례’와 ‘기본계획’을 만들고, 모든 것이 폭넓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행정 전문가에 의해서 계획되어, 행정과 시민의 협력 및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의식의 향상도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중화(中華)과자 : 나가사키시는 예로부터 중국 문물의 유입 도시로서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어 있어 많은 관광객의 유입을 위해서 각종 중국풍의 연중 행사 및 특산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위의 4도시의 사례에서 서로 다른 4가지 타입의 디자인관련 행정시스템과 업무 등을 분석해 보았다. 행정에 경관조성 및 상품개발 지원 등의 부서를 두고 그것을 운영할때는 후쿠오카의 사례에서 보듯이 각 실(室), 국(局)과 같이 디자인부서가 독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디자인 마인드가 필요한 모든 부서들이 종적(縱的)인 협조, 의뢰, 확인절차를 거치므로서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업무의 시행과 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의 행정체계 및 사업내용을 도시경관 조성에 있어서도 보다 구체적인 시스템도입을 위해 제4장에서 서술하는 것과 같은 여러 방안을 디자인 사고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시도해야 할 것이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사고 도입을 위한 구체화 방안

앞서 사례분석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도청은 도청내의 시장 직속부서로서 도내의 중소기업들의 디자인 서비스를 비롯하여, 도(道)의 환경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 서비스와 자체내의 행정에서 야기되는 디자인의 모든 분야를 하나의 부서에서 모두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충청북도청의 경우는 종적인 소속 부서로서 도내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품디자인과 포장디자인의 개발 업무만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후쿠오카시는 행정에 있어서 디자인도입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 행정, 시민, 기업 등이 함께 협의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조례 등의 규정에 근거해 오랫동안 전문성을 갖고 도시경관 조성의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디자인 업무 담당은 상공회의소에서 디자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리지원의 일반적인 행정만을 다루고 있었다. 거기에 비하면 나가사키시의 경우는 후쿠오카시와 달리 충청북도청의 업무를 포함해서 주민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특산품의 개발지원 등 보다 구체적인 부분까지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었다.

그것을 토대로 본다면 행정에 있어서 디자인 업무의 범위와 대민 지원을 어디까지 할것인지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행정에 있어서의 디자인 도입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행정, 시민, 기업 등이 함께 협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인 주민에게 행정에서 야기되는 모든 디자인 관련 행정서비스에 최선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과 시스템에 대해서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이 행하는 디자인 관련 사업에는 구상, 기획, 실시, 보전, 유지관리, 보급, 지원 등 행정, 시민, 기업이 상호 유대관계를 갖는 다양한 형태가 상정된다.

여기에서 그들에 대한 구체화방안을 모두 제시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그 중 행정이 새로운 경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다음과 같은 디자인 도입의 구체화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4-1. 시민요구의 파악

먼저, 공공적인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구체화하고, 제안하는 단계가 필요하며, 그 방법론의 확립이 요구된다.

시민의 쾌적한 삶에 대한 요구는 명확한 것도 있는가 하면, 잠재적이고 막연한 것도 있고, 제한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일과 많은 시민의 공통관심사인 일도 있어, 여러가지 경우에 적합한 시민요구의 파악방법이 필요하다.

4-1-1. 일상적인 시민요구의 조사 파악

시민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로서 시민이 일상적으로 행정이나 주변환경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나 요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 파악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경우 지역의 다양한 특성이나, 지금까지 시책된 계획이나 각종 데이터 등에 입각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것에 의해 시민요구에 맞는 계획의 재평가도 가능하게 된다.

쾌적한 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요구의 조사, 파악하는 방법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일정한 방법론이 확립되어 있는 제품개발의 시장조사방법의 응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4-1-2. 개개의 구체적인 요구의 파악

개개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는, 그 사업에 대한 시민의 구체적인 요구의 파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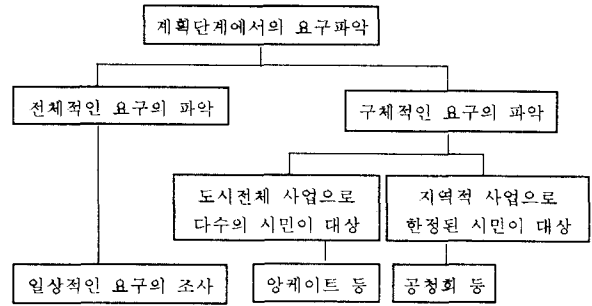


표8. 개개의 구체적인 요구의 파악

도시 전체규모로 행하는 사업에서는, 많은 시민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테마를 설정한 앙케이트 등에 의한 조사, 파악이 필요하다.

또 한정된 지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공청회 등 직접적인 조사, 파악의 방법을 취할 수가 있다.

구체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편이 시민의 의견이나 요망도 구체화하기 쉬워진다. 이를 위해, 계획단계에서 사업의 개략을 알기 쉽게 보여주고, 시민의 합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표8)

그런 경우, 가능한 한 많은 관점을 도입하기 위해 연령, 성별, 주거지역, 직업 등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집약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2. 공공디자인의 형성

공공디자인이란, 많은 시민이 공유하는 공공영역에 있는 디자인이다.

행정이 실시하는 디자인인 경우 일반적인 소비시장의 경우와는 달리 '산다, 사지 않는다' 라는 취사선택권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에게 있지만, 공공디자인의 경우 일단 설치되어버리면 시민의 선택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사전에 시민의 합의를 얻어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같이 성격의 차이는 있지만, 공공디자인도 제품디자인과 같아, 다음과 같이 계획, 입안, 시작(試作), 평가, 실시라는 기본적인 단계를 밟을 필요가 있다.(표9)

① 계획 : 시민의 요구나 지역특성, 기본이 되는 계획에 기초하여, 사업목적, 내용, 예산, 방법등을 검토 결정한다.

② 구체화 : 계획에 기초하여 전문가가 참여하여 목적·기능등을 구체화한다.

③ 시뮬레이션 : 모델을 작성(불가능한 경우는 완성을 가상)하고, 목적·기능이 충족되었는가를 검토한다.

④ 평가 : 시작(試作)의 결과, 문제나 재검토의 필요성에 대해 평가한다.

⑤ 문제점 보완 : 평가의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시 디자인한다. 재검토해야하는 요소가 많은 경우는 보완된 디자인을 기초로 하여 디자인을 기초로 재평가하고 일정수준을 넘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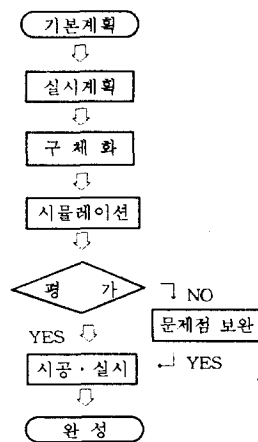


표9. 공공디자인 사업의 진행 과정

까지 반복하여 디자인한다.

⑥ 시공, 완성 : 위에 기술한 각 단계를 지나 디자인을 확정된 후 시공, 실시, 완성한다. 완성 후 재평가하고 이후의 사업계획 등에 활용한다.

4-3 구체화 방법

실제로 사업을 진전시키는데는 구체화의 단계에서 디자이너나 건축가 등의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구체화 방법에는 시민참가, 전문가의뢰라는 두개의 방법이 있고 어느쪽을 선택하는가는 사업의 내용, 성격, 기간 등을 고려하면서 결정한다.

사업의 목적에 따라 시민이 직접 참가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참가에 의한 디자인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민참가에 의한 디자인 방법에는 워크샵, 시민공모 등이 있다.

또 사업목적상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가진 디자이너 등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에는 적절한 전문가를 선정하여 의뢰한다.

이 경우, 사업내용과 의뢰하는 전문가의 역량이나 실적을 파악한 적절한 선택, 판단이 필요하다.

디자인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법으로는 컴피티션(공모), 지정발주 등의 방법이 있다.(표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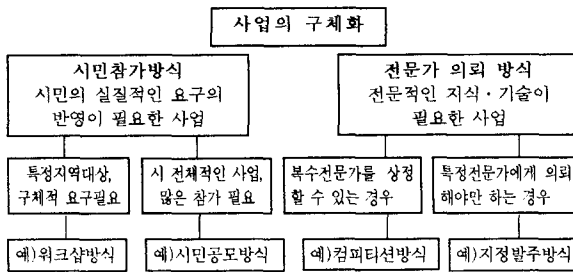


표10. 구체적인 도입방법

4-3-1 워크샵 (Work-Shop)

워크샵이란 시설 등을 만들 경우, 현장견학, 사용실험, 설계·디자인등 여러단계에 있어서 실제로 시설을 이용할 시민이 참가하여 사업을 매듭짓는 방법이다.

워크샵을 실시할 경우는 참가할 시민과 전문가가 다음과 같은 약속 사항을 지킬 필요가 있다.

첫째, 시민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자세를 가지고, 행정·전문가와 대등한 파트너로서 전원이 납득되도록 논의를 거듭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가는 정리역할로서 다양한 의견이나 제안을 기초로 플랜을 통합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전문가에게 있어서 엄격한 조건이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능력이 점점 필요해질 것이다.

워크샵은 시민이 디자인에 참가하기 위해 구체적인 요구를 하기 쉽다. 그 결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확립되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첫째, 시민참가에 그 인원수가 제한된다. 둘째, 보통보다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든다. 셋째,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 디자인의 통일성이나 적합성이 손실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있다.

이 경우, 색이나 형태의 좋고 싫음이 아닌, 기능면에서 시민요구의 반응을 철저히 하고, 그 뒤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으로 디자인의 통일성이나 적합성은 어느정도 확보된다.

워크샵의 응용범위로서는, 주로 지역주민이 이용할 공원이나 공공시설 등의 사업에서, 착공까지 어느정도 검토할 기간이 있는 것으로 제한되며, 시 전체적인 규모의 사업이나 광범위한 시민합의가 필요한 사업, 착공까지 시간의 여유가 없는 사업, 디자인의 통일성이나 적합성이 강하게 요구되어지는 성격의 사업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4-3-2 시민공모

시민공모란, 큰 공장의 굴뚝이나 장식되어 있지 않은 절개지, 옹벽, 담 등의 색채디자인의 사례와 같이, 시민전반에 디자인안을 공모하고, 가장 우수한 안을 선정하여 사업에 도입하는 방법이다.

공모에 있어서는 내용, 선정방법, 선정 후의 구체화의 방법 등을 다양한 요소를 검토하는 데에, 응모요강을 작성하여 신문이나 TV, 홍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준다.

디자인안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구체화할때 문제가 되는 점을 사전에 상정하고, 조사기준을 정하고,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한다.

그 경우 선정안을 구체화할 때 원안의 창조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의 디자인 변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무로 담당하는 전문가를 투입시킬 필요가 있다.

시민공모에는 다수의 시민이 참가하는 것과 독창성을 잃지 않는 것, 시민의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보통보다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고 기능, 환경조화 등의 과제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는 등의 단점도 있다.

시민공모의 응용범위로서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디자인으로 일정기간의 여유가 있는 사업에 한정되며, 착공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업, 전문적인 지식,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4-3-3. 컴피티션 (Competition)

컴피티션이란, 복수의 전문가를 지명하거나 또는 불특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디자인안을 모집하고,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안을 제출한 전문가를 선정하여 디자인을 일임하는 방법이다.

지명 컴피티션인 경우는, 지명할 전문가의 범위를 사업목적이나 내용에 의해 검토, 설정(참가한 전문가에게 일정한 사례 또는 디자인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하고, 불특정 전문가에게 공모할 경우는 참가자격을 설정하는 경우와 특별히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사업의 내용이나 주어진 조건, 기간 등에 맞추어 어떤 조건을 설정할까를 결정한다.

디자인안의 모집에 있어서는, 사무의 조건과 기준을 보여주고, 기한을 정하여 안을 제출시키고, 시민공모와 마찬가지로의 심사 프로세스를 거쳐 선정한다.

컴피티션에는 첫째, 복수의 전문가중에서 가장 우수한 안을 선택할 수 있고 둘째, 특정전문가를 선정하는 프로세스가 공개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보통보다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며, 참가하는 전문가에게 부담을 강요할 우려가 있는 등의 단점도 있다.

컴피티션의 응용범위로서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이 요구되고 공공디자인으로 의뢰해야할 복수의 전문가가 상정되고, 착공까지 어느정도의 기간이 확보되는 사업에 한정되고, 착공까지 시간의 여유가 없는 사업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디자인은 전문가의 창조성에 의한 점이 많아 지적소유권으로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디자인의 좋은 점을 짜집기한 것과 같은 것을 엄격히 삼가야 한다.

4-3-4. 지정발주

지정발주란, 특정 전문가를 선정하여 디자인을 의뢰하는 방법이다.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는, 컴피티션 등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의 내용·조건에 의해 사전에 특정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으면 실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은 지정발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사업의 목적에서 보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가를 실적, 전문분야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한다.

지정발주에는 첫째, 컴피티션의 경우와 달리 발주자측의 요망을 충분히 반영한 디자인을 요구할 수가 있고, 정정(訂正)의 여지도 있다

둘째,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사전에 한사람을 선정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고, 시민합의를 얻기가 어렵고, 프로세스가 공개되지 않으면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질 우려가 있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

지정발주 방식의 응용범위로서는, 높은 정보발신성이 요구되어지는 사업이나, 착공까지의 시간적 여유가 그다지 없는 사업 등, 특정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으면 실시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정되며, 많은 시민의 합의나 참가를 필요로 하는 성격의 사업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워크샵이나 시민공모 등 시민참가에 의한 디자인수법은 시민합의를 얻는데 큰 효과가 있어, 일반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업이나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요하는 디자인에는 적당하지 않다.

한편, 컴퓨터선이나 지정발주 등 전문가에게 디자인을 의뢰하는 수법은 정보발신성이 있는 높은 레벨의 디자인을 기대할 수 있고, 기능, 안전, 환경조화 등의 면에서도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비교적 없는 반면, 시민의 의견반영이나 합의형성, 지역특성을 살리는 등의 부분에 곤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게다가 여기에 예를 든 워크샵, 시민공모, 컴퓨터선, 지정발주 등 네개의 방법은, 예로서 보인 것으로 수법은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법으로서 여기예를 든 것 외에 프로포우징(Proposing)방식(공모 또는 복수의 전문가를 지명하여 기술제안 등을 받아 선정하는 방법)도 있다.

사업의 내용에 따라 이들의 방법을 조합하는 것도 가능하며, 상기의 장점, 단점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4-4 시민으로서의 제안과 평가

시민이 공공디자인의 구체안에 대하여 찬성여부를 표방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로 시공, 실시에 들어가기 전에 디자인안을 기초로 시민에게 제안하고 승낙을 얻을 필요가 있다.(표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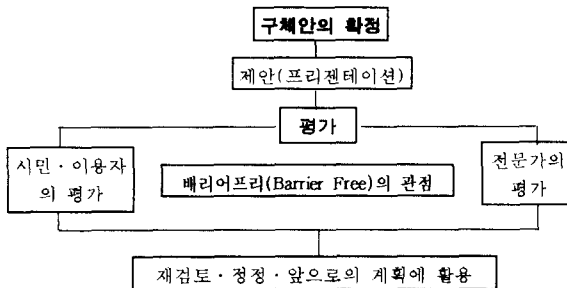


표11. 시민으로서의 제안과 평가

4-4-1. 제안(Presentation)

디자인안을 광고나 홍보지 등을 통하여 많은 시민에게 가능한 한 알기쉽게 눈에 띄는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정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는 디자인안의 발표회를 실시하는 등의 형태로 대응할 수 있다.

제안에 당면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① 디자인의 색·형만으로 평가되어 버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업의 목적이나 디자인작성의 경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 ② 주민을 무시하는 인상을 주민에게 주지 않기 위해, 주민 의견의 채용 또는 비채용의 이유·경위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4-4-2. 평가

제안(프리젠테이션)을 받은 후에는 양케이트 조사 등의 수법에 의해, 제안에 대한 시민평가를 받는 것이 필수이며, 이것에 입각하여 이후의 사업(실시 또는 시공)을 진전시켜야 한다.

특히 공공시설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나 어린이, 노약자의 시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고령, 장애자, 어린이 등이 평가에 참가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또 시민의 평가와는 별도로 기능, 환경적 측면으로서의 배려,

안전성 등에 관한 전문적인 입장에서의 평가도 필요하다.

이와같은 평가의 결과에 기초하여 가능한 것은 재검토나 정정을 행하고, 이후의 계획에도 활용해 간다.

4-5 지역산업의 도시경관조성 참가

행정이 시민의 요구를 구체화하여 행하는 사업에 지역산업이 참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4-5-1. 기업·디자이너가 직접 참가할 경우

사업실시에 필요한 디자이너와 기업을 자치단체가 직접 선정하고 발주하는 방법이다. 디자이너의 선정방법에 관해서는 구체화항(5-3항)에서 보여준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기업을 직접 선정하는 것은 제도상의 문제도 있고,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전제조건으로서, 선정에 있어서 행정사업 담당자는 지역기업이 가진 기술, 디자인 능력이나 실적, 전문분야 등이 적합한지 파악해 두어야 한다.

즉, 행정공무원이 디자인매니지먼트 능력을 지닐 것이 요구되지만, 현재의 행정공무원이 디자인전문가가 아닌 한 행정공무원의 전문성이나 전문지식의 결여로 인한 불균형이 생겨서 안정된 수준에서의 디자인적 측면의 도입은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다.

4-5-2. 코디네이터(Coordinator) 기관을 상정할 경우

이와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행정과 지역기업간을 잇고, 조정하는 기관이 필요해질 경우가 있다.(표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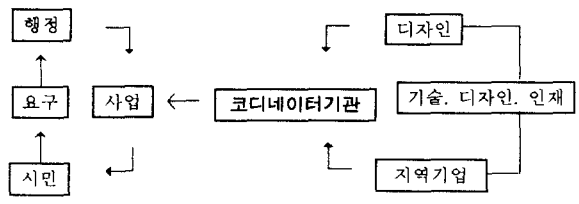


표12. 코디네이터 기관을 상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이와같은 기관을 「디자인 센터」라고 부른다.

광역시에 있어서는 지역특성 살리기를 추진하기 위해 디자인 센터를 설립하여 센터를 주축으로한 지역산업 고도화의 지원 기관으로 자리잡음으로서, 디자인센터적 기능·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4-6 행정에 있어서의 디자인매니지먼트(Design Management)

이상과 같은 수법을 공공디자인에 도입해 가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가, 혹은 어떤 전문가를 지명 선택하는가 등을 어느정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즉, 기업에서 말하는 디자인매니지먼트를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지만, 이와 같은 역할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적절한가(이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임의로 '디자인매니저'라고 부른다.)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디자인매니저에게는 디자인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과 함께 행정이 행하는 다양한 사업을 숙지하고, 종적관계의 조직을 넘어선 횡적인 방법으로 디자인을 도입해 가는 역량이 요구되지만, 이와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이 아직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행정조직에서 처음부터 양성하든가, 또는 외부의 적당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어느 한쪽의 방법을 택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

4-6-1. 조직내에 디자인매니저(Design Manager)의 자리를 마련할 경우

행정조직내에 디자인매니저의 자리를 마련할 경우, 조직내에서 적임자를 확보하거나,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새롭게 전문적 교육을 받은 인재를 직원으로서 채용하는 인재확보상의 문제가 있다. 또 확보된 인재를 디자인매니저로서 어떻게 육성

해 가는가의 문제도 있다. 게다가 행정조직속에 디자인매니저 직위를 설치할 경우, 획적인 조직으로 조정할 큰 권한을 가진 전문직을 조직내에 어떤 위치를 주어야 하는가 하는 조직상의 문제도 있다.

이와 같이 행정조직내에 디자인매니저의 위치를 만들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문가를 채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속부서로 독립하는 경우, 일의 능률은 오를 것이나 조직내의 위화감 등이 표출될 수 있고, 종적인 자리를 마련할 경우에는 결재 단계로 인한 시간적 소비가 커 일의 능률이 오르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검토, 해결해야 한다.

4-6-2 디자인매니지(Design Manage)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경우

한편, 외부의 전문가에게 디자인매니저를 의뢰하는 방법을 취할 경우는, 어떤 전문지식·기술을 가진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는가, 의뢰할 전문가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등, 행정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재확보시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 전문가에게 의뢰할 내용, 조건, 기간 등을 어떻게 정하는가, 그 전문가를 행정조직내에 있어서 어떤 자리를 주고,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가 등 조직내의 권한상의 문제도 고려해야 할 점으로 남는다.

4-7. 모델 케이스로서 울산광역시 행정 시스템에 디자인 사고 도입을 위한 방안

4-7-1. 울산광역시 도시 개요

울산시의 행정조직은 민선 시장 아래 1실 7국 1부를 두고 있으며 도시국내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행정과에서 도시계획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경기도청의 행정디자인실이나 충청북도청의 산업디자인실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없다. 또한 도시국내의 각과에서 도시미관, 도시계획, 공원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후쿠오카시나 나가사키시와 같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도시경관 등에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거나 지역 특산물 개발에 역점을 두는 시스템도 현재로서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

울산의 경우 현행 법체계상 전문가의 접근이 실제로는 쉽지 않지만 앞으로는 모든 디자인 실행계획에 있어서 디자인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직은 도시계획은 물론 주민의 의식과 자치단체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어 그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행정에 디자인시스템을 도입하는 일 만큼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연구방법에 의해 가끔씩 빨리 수행되어야 하고 장기간에 걸친 자료를 토대로 행정시스템으로의 디자인 도입을 해야할 것이다.

5-7-2. 디자인 시스템 도입 방법

이상(5-1~5-6항)과 같은 검토를 근거로 본다면 행정에 디자인 도입의 경험이 약한 울산광역시의 경우, 현재로서는 앞에서 서술한 어느 한 방법만을 도입하는 것 보다, 당분간은 외부의 전문가에게 일정한 디자인 매니지먼트를 의뢰하여, 조언 및 의견청취를 병행해 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디자인매니저를 채용함으로써 디자인 전문가와 숙련된 내부의 행정전문가와의 조화에 의해 내부전문가를 양성해 가는 행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권한이 큰 디자인매니저의 역할을 처음부터 특정한 사람에게 일임하는 것은 시민과의 합의된 의견 도출을 어렵게 할 수 있기때문에, 그 기능을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례를 경험해 가면서 행정시스템화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와 내부전문직에 있는 다수의 사람으로 팀을 짜 작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서 권한집중으로 인해서 생기는 독단적인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현상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에게 행정디자인 매니지먼트를 일괄하여 의뢰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디자인 전문가는 조언자적 위치에서 자치단체가 디자인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시스템이 구축될때까지는 (표13)와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할

<p>제1단계 (인식단계)</p>	<p>지역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세미나</p> <p>주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특성화를 위한 디자인 도입 선진 행정시스템의 현대디자인 접목·효과 시민의식(생활수준·문화의식)과 디자인 지역산업과 디자인 / 디자인 행정 / 정보화와 CYBER CITY <p>기초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자인 관련 기초조사·연구 디자인 현황 및 선진 도시와의 비교 분석 연구
<p>제2단계 (도입단계)</p>	<p>지역 디자인 추진위원회 구성 (행정담당+디자인 전문가+시민대표) : 기획실 또는 시장 직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도입 기초작업 실무(시행법령·조례·시행규칙 등 행정기초환경 조성) 행정부서별 디자인 관련 업무 발체·분석 지역 종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디자인 시범사업(도시경관 : 문화거리조성, 문화상품 개발, 특성화 공원 조성) 디자인센터 역할로서의 지역대학, 디자인 연구소 상설기구화 연계운영(전문위원회)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교육
<p>제3단계 (정착단계)</p>	<p>행정디자인 관련업무 관장부서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단계의 결과평가 분석 디자인 기본계획에서 디자인 부분별 기본계획 설정(디자인 분야별 시범사업 병행)-세부과제(각 분야 실무집행위원회 구성) TOTAL DESIGN 행정시스템 구축, DATA BASE 확보 전문인력 양성 배치 및 재교육 독특한 국제적 모델 디자인 도시 구상

표13. 울산광역시 행정시스템에 디자인사고 도입 3단계

필요가 있다.

제1단계는 '인식단계'로서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의 디자인 인식이 필요한 단계로서 두 집단이 참여하는 디자인세미나 등이 필요하다.

제2단계는 행정에 '디자인 마인드를 도입'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가 된다.

제3단계는 '정착단계'로서 행정직제상에 디자인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만들어져 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업무를 시행하게됨으로서 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디자인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델사업의 실시」 「디자인행정 추진위원회의 설치」 「디자인프로젝트팀의 도입」 「디자인센터의 운영」 등의 노력을 통하여, 실제 사례를 쌓아가면서 필요한 검토를 통하여 발생된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울산광역시의 실정에 맞는 디자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7-3. 행정디자인시스템이 구축된 후의 과제

이상으로 보여준 여러가지 행정시스템을 확립하는데에는, 각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서 상정된 다양한 과제를 사례에 입각하여 검토해 갈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구체화방안은 개략적인 것이므로, 실제로 개개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의거한, 보다 섬세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실제 사업실시에 적용시켜, 시스템이 정상으로 기능하고 있는가, 실정에 맞는가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시행한 뒤에 행정시스템으로서 도입한다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와같이 디자인 시스템 도입후에는 보다 완벽한 디자인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표14)와 같이 테마를 크게 '추진체제 강화'와 '필요한 사업의 실시'라는 두 개로 설정하여 필요한 사항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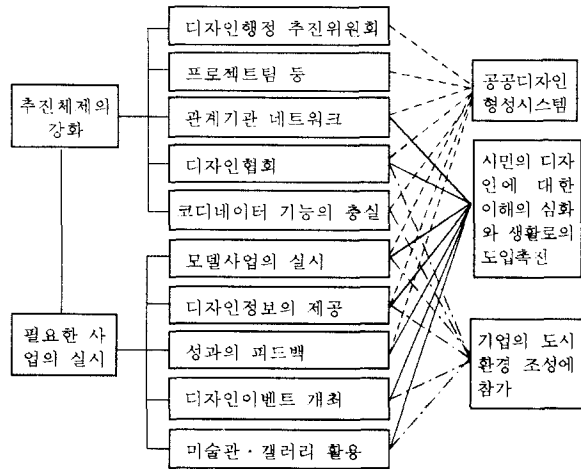


표14. 행정디자인 부서에서의 디자인시스템구축

을 구축하여 실시해가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이상적인 '체계적인 디자인 방향의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표15)와 같이 좀 더 구체적이고 이상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먼저 「지역의 테마」를 설정하고, 테마에 의한 「분야별 과제」를 테마별로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행정분야」에서는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관련부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의 경관이나 지역의 특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부서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서로 관련된 부서끼리 관련 조배나,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주도해 나가는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의체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행정시스템상에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한 후 「추진체제」를 거쳐 사업시행에 들어가는 유기적인 시스템가동이 실현됨으로서 행정과 디자인, 주민이 하나가 되는 아름답고 활기있는 마을, 자연과의 공생을 통해 살기좋은 마을로서의 주민의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결론

디자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부가가치적 의미로 밖에 인식되지 않다가,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일반인에 대한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해외여행과 중소기업들의 외국과의 교류가 점점 확대되어 왔다. 그러한 환경의 변화는 우리와 외국과의 비교를 직접 체험하게 됨으로서 일반인들이나 중소기업 경영진들이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강한 요인이 되었다. 디자인이 기업경영수단의 하나로서 중요하게 자리매김되기에 이른 것이다.

90년대에 들어서 동유럽 공산체제의 해체로 인한 탈이념에 의한 국가간 냉전체제가 완화되면서 국가와 지역간의 경제전쟁은 날로 치열해져 가고 있으며, 중·후진국가는 선진 국가의 경쟁우위가 디자인에 있다는 것을 알게됨으로서 디자인은 국가 경쟁력의 주요수단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 하나로서 현대 산업에서의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자인의 해'를 제정하는 등 디자인으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보였다.

그러나 그렇게 형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현실적으로 무엇부터 시작해야 디자인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교육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있어서도,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디자인이 왜 필요한지, 앞으로 디자인 마인드가 없이는 왜 대외 경쟁력이 없는 지를 하루 빨리 인식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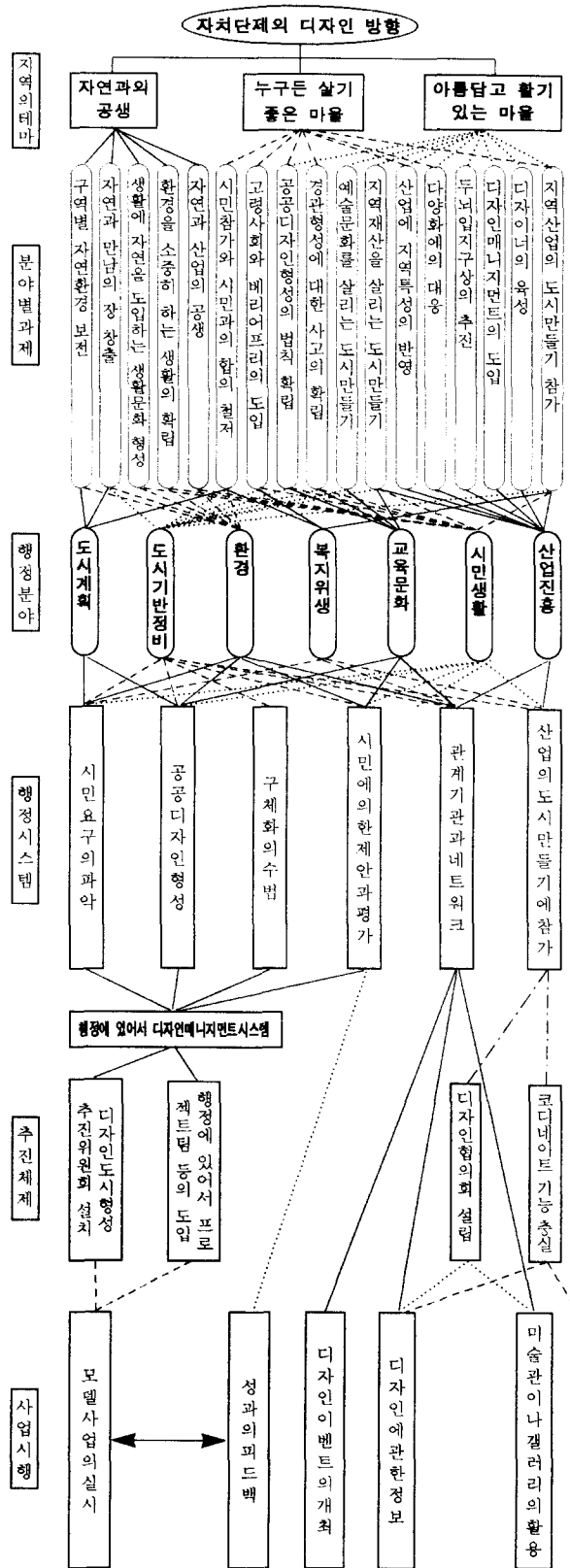


표15. 자치단체의 디자인 방향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디자인 계획에 의해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야 하며, 막연히 외국의 디자인 문화를 모방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것을 바탕에 두고 전통적인 가치에 의한 디자인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뛰어난 조형문화의 전통을 갖고 있기에 가장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지역적인 것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인 것처럼 가장 지역적인 것 또한 그 지역의 가장 독특한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적이거나 지역적인 것이 옛 것의 모방이나 답습으로 인해서 조잡하고 조악한 디자인이 탄생되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문화와 조형의 본질을 재발견하여 현대적인 것으로 발전시켜나가야만 독자적인 가치와 지역의 생활 문화와 동화되는 디자인이 탄생될 수 있다.

행정예 디자인 전문가가 자리잡고 주민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높여감으로서 행정과 주민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디자인이 갖는 부가가치의 커다란 효과를 지역주민에게 돌려줌으로서 지역주민으로서의 보람과 긍지, 삶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디자인의 시대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자치행정의 꽃'이라고도 불리워지는 '디자인'은 그 나타내는 결과의 아름다움이 지역에 퍼져나가는 효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른 일반행정업무와는 달리 주민의 신선한 참여의식으로 공동의 비전(Vision)을 추구하고 현실화해 나가는 것이다. 그 과정(Process)에서 자치행정의 참맛을 주민과 행정당국이 서로 느낄 수 있음으로써 자치행정과 주민사이에 있을 수 있는 괴리감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행정과 주민사이의 창의적인 협력·공조체제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창의적인 공동체 의식의 성공적인 노력이야말로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지역경쟁에서의 가장 커다란 추진력이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국내 각 지방자치단체의 미래상(未來像)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에 길잡이로서 보다 문화적이고 진취적이며 경제적인 선진행정의 바탕이 되어,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를 주민과 같이 열어나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민경우, 디자인의 이해, 미진사, 1997
2. 울산대학교 조형대학, 한일디자인세미나, 1997
3. 경기도 행정디자인실 안내, 경기도청 발간
4. 충청매일신문, 1997, 2. 27자 기사
5. '97 한일디자인세미나, 울산대학교 디자인대학 발간
6. 후쿠오카의 도시계획, 후쿠오카시청 발간, 1996
7. 후쿠오카 도시경관조성의 개요, 후쿠오카시청 발간, 1989
8. 나가사키시의 조각이 있는 도시조성 사업, 나가사키시 발간
9. 도시의 크레용, 나가사키시 발간
10. 후쿠오카시 도시경관 조례 관계 규정집
11. 나가사키시 도시경관 관계 조례 예규집